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ALVATION CITY

가제 : 구원의 도시: 전염병 이후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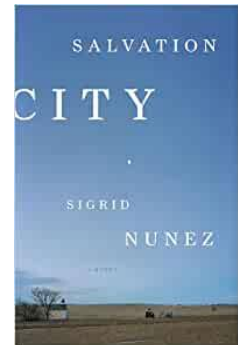
저자 : Sigrid Nunez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10년 9월 1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코비드 19가 끝난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적인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꼭 읽어 볼만한 소설**

엄청난 전염력을 가진 독감이 전세계를 휩쓸고 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열세 살 소년 콜 바이닝은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 콜은 운 좋게도 미국 인디애나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와이엇 목사의 부부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라져 버린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소년의 시선을 따라, 세계적인 재난 이후의 세계를 현실감 있게 그리면서 사랑과 배신, 용서 그리고 믿음과 영웅주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이다.

와이엇 목사는 콜에게 이 세상은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생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좋은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콜은 생전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표현은 바보 같은 표현이며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던 그의 엄마를 떠올렸다. 훗날 콜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 대신 ‘세상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복음주의 교회 목사이자 콜의 양부인 와이엇 목사는 설교 중에 종종 다른 사람의 죽음을 두고 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곤 했는데 콜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인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음을 깨달았다.

콜은 아직도 와이엇 목사를 똑바로 잘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콜은 언제나 자신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너무나 많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와이엇 목사는 언제나 활짝 웃으며 사람들을 당당히 응시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특히 여자들은 다들 그의 시선을 받는 것을 대단히 즐겼다. 또한 그는 전염병 이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인사법인 ‘팔꿈치 인사법’ 대신 여전히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했고 전까지 있었던 유행병은 재앙 축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로 더 끔찍한 최악의 전염병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여러모로 와이엇 목사와 그의 부인인 트레이시는 콜의 부모님과 전혀 다른 부부였다. 와이엇 목사의 손은 그 어떤 독감 세균도 묻어 있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하얗고 깨끗했고 단 한번도 아파 본적이 없는 사람 같았다. 이따금 트레이시가 목사의 손톱을 손질해주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콜은 마치 두 사람이 섹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 마냥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콜이 보기에 목사 부부는 자신의 부모님과 달리 섹스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외동 아들인 콜의 부모님은 각각 역사 교수, 변호사였는데 늘 콜에게 종교란 모자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가르쳤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종교를 갖게 하는 것은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믿고 있었고 신앙을 가져야 한다면 무신론을 믿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콜의 부모를 포함해 전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전염병 사태는 콜의 아버지가 새로운 직장 때문에 가족이 전부 인디애나로 이사한 직후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콜은 아버지가 독감에 걸려 먼저 돌아가시자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인지,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콜도 앓기 시작했고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 얼마 후 콜은 기적적으로 말끔한 상태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불행히도 콜은 곁에 있던 어머니마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아가 된 콜은 수많은 비극으로 인해 도처에 생겨난 임시 기관들 중 한 고아원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전염병 이후 마약 거래와 같은 다른 불법거래들이 훨씬 어려워지자 대신 인신매매범들이 점차 생겨났고 고아원은 아이들을 유괴하기 하기 딱 좋은 악몽 같은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콜은 목사 부부의 집에 입양 되었고 내키지는 않지만 홈스쿨링을 통해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에도 점점 몰두하게 되었다. 콜은 비록 거부감이 들기는 했지만 종교와 믿음이 안심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사 부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르길 전염병 이후에도 살아남아 마지막 대 전쟁에서 활약할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로 선정 되었다는 목사의 조카 스타린을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곧 콜은 스타린에게 인간적인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점점 환멸에 빠지고 만다. 콜은 자신만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게 될까?

<저자 소개>

시그리드 누네즈 (Sigrid Nunez)는 『The Last of Her Kind』, 『A Feather on the Breath of God』, 『For Rouenna』의 저자이며 Whiting Writers 'Award, Rome Literature of Literature, Berlin Prize Fellowship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뉴욕에 살고 있다.

제목 : HARD CASH VALLEY

가제 : 피 묻은 돈의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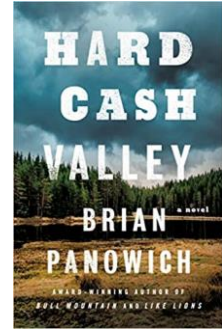
저자 : Brian Panowic

출판사: Minotaur Books

발행일: 2020년 5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정서적 울림과 잔잔한 필력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범죄 소설"- 북 리스트**

데인 커비는 이미 망가진 남자였고 그에게 비극이란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 맥 폴스 카운티에 살아온 전직 방화 전문 수사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인은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는 동시에 한 끔찍한 살인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가 낭자하는 음울한 남부 누아르이자 사랑과 배신, 인간의 잔인성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는 범죄 소설이다.

아니 블랙웰은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었다. 그는 애틀랜타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만 해도 현금을 싣기 위해 선택한 가방이 그가 들고 다니기엔 터무니 없이 크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이제 잭슨빌 공항에 내려 다른 승객들과 나란히 서서 자신의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언제 나올지 전전긍긍해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폐쇄공포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바비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동생 윌리엄이 잘 있는지 물었다. 이어 그는 두 시간 후 윌리엄을 자신이 말한 장소에 데려다 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자신이 말한 물건들을 제대로 된 장소로 보냈는지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은 이상 한동안 전화하지 말라고 못박았다. 긴 기다림 끝에 그는 드디어 가방을 손에 넣게 되었고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을 안고 근처 모텔에 들어섰다. 그는 예약한 방에 아직 청소가 끝나지 않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호텔 직원의 말에 간곡히 사정을 한 다음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모텔 방문이 열리자 그는 즉시 미소를 잃고 말았다. 그 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아니도 잘 알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필리핀인으로 '스모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스모크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덩치가 두 배 정도 더 커 보이는 또 다른 필리핀 남자인 펜이 함께 있었다. 아니는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둔 총을 급히 찾으려고 했지만 대체 어디에다 총을 숨겨 둔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니에게 아니가 자신들에게서 훔쳐간 돈을 가지러 온 것이라고 말하며 아니를 위협했다. 하지만 아니는 겁을 먹은 나머지 점점 말조차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니는 그들에게 자신은 결백하다고 빌었지만 그들은 가차 없이 아니를 폭행했다. 아니는 그들이 애틀랜타 농장에서부터 시작해 아니가 타고 있던 비행기 뒷좌석에 이르기까지 잭슨빌로 오는 내내 자신을 미행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아니에게 나머지 돈은 어디 있는지 추궁하던 중 아니의 동생 윌리엄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았다. 아내는 아직 침대에 불과한 자신의 동생이 해를 입게 될 까봐 불안해 죽을 지경이었고 혼신의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들은 아년의 턱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아년을 내려쳤고 아내는 윌리엄을 보호하기 위해 동생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바비의 은신처를 쪽지에 적어 스모크에게 보여주었다.

한편 데인 커비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GBI (조지아주 수사국)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맡게 된 사건은 플로리다 잭슨빌의 한 모텔방에서 일어난 잔인한 살인 사건, 즉 아년이 살해 당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파트너는 FBI 요원인 로젤리타 벨라스케스였다. 하지만 당사자인 데인은 물론이고 로젤리타 역시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무한 데인이 어떻게 이런 사건에 투입되었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첫 인사 후 곧장 사건 현장인 모텔방으로 향했고 왜 데인이 이 사건을 해결할 책임자가 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건 현장으로 들어서자 데인은 즉시 익숙한 연기와 불에 탄 고기 냄새 같은 악취와 머리카락이 뒹굴 때 나는 냄새와 더불어 사람의 배설물이 결합된 구리 냄새가 난다는 것을 감지했다. 데인은 응고된 피와 더러운 흔적들을 피해 방 전체를 한 번 둘러보았다. 그는 그 동안 많은 죽음을 목격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보통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불꽃이 채 몸에 달기도 전에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는 다른 것 같았다. 그는 이 방에 들어온 지 1분도 채 되기도 전에 화재는 이 살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는 사타구니부터 흉골에 이르기까지 찢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데인은 부러진 시체의 턱을 살펴보다 목구멍 안쪽에 붓기도 전혀 없고 수축된 흔적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아내는 불이 타오르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는 의미였고 데인은 범인들이 그저 본인들의 발자국을 없애기 위해 불을 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데인과 로젤리타는 곧 이 살인은 시작에 불과하며 누군가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으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숫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년의 남동생 윌리엄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윌리엄을 이용해 또 다른 범죄 계획을 꾸미고 있거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데인은 수사 중 필리핀 마피아 조직부터 시작해 다소 못미더운 연방 요원들과 자신이 이 지역에서 알고 있는 어두운 조직망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거대한 비밀과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데인과 로젤리타는 범인들보다 윌리엄을 빨리 찾아내어 더 많은 시체들이 쌓여가는 것을 막아 낼 수 있을까?

<저자 소개>

브라이언 파노위치 (Brian Panowich)는 수상 경력을 가진 작가이자 조지아주의 소방관이며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그의 첫 번째 소설 인 Bull Mountain은 Los Angeles Times Book Prize 의 최종 후보에 올랐고, ITW Thriller Award와 Southern Book Prize 수상작이며 Anthony and the Barry Awards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제목 : THIS TIME NEXT YEAR

가제 : 미니와 쿤: 같은 날 태어난 두 남녀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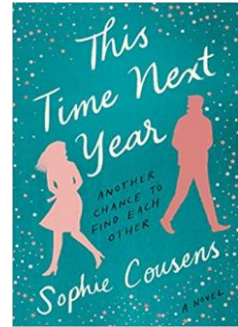
저자 : Sophie Cousens

출판사: G.P. Putnam's Sons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분량 : Cousens

장르 : 로맨스



*** 같은 날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갖게 된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벌어지는 따뜻한 로맨스**

철저한 현실 주의자이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제빵사인 미니 쿠퍼는 매년 새해가 시작 되는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의 생일이 얼마나 불행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30년 전 새해 첫날 자정 직후 자신과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쿤 해밀턴 때문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90년 런던에서 '새해에 태어난 첫 아기'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미니에게서 빼앗아간 사람이었던 것이다. 미니는 한번도 만난적 없는 그를 평생 미워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미니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그를 만나게 된다. 조조 모예스의 팬이라면 분명히 마음을 빼앗길 만한 사랑과 운명에 관한 따뜻한 로맨스 소설이다.

2019년 새해 전야, 미니는 남자친구 그렉과 함께 클럽 파티장에 있었다. 자신의 생일이자, 새해 첫날인 1월 1일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미니는 사실 오늘 10시부터 집에서 그냥 잠에 들 생각이었지만 집 난방도 끊긴데다 그렉의 친구 루시가 연 파티장에 남자 친구를 홀로 보내는 나쁜 여자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곳에 온 것이었다. 미니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인파를 헤치고 테라스로 올라 가던 중 한 취객이 실수로 그렉을 치고 맥주를 엮는 장면을 보곤 이번에도 생일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생일 징크스가 계속 될까봐 불안해졌다. 미니와 그렉은 사귀기 5개월 된 연인이었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는 런던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한 행진 데모가 열린 길거리였다. 그렉은 당시 그 시위에 대해 취재를 하러 나온 기자였고 자선단체에서 케이터링 사업을 하고 있던 미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렉은 익히 미니가 매년 새해마다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미니가 이번만큼은 징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렉이 잠시 두 사람만 오붓하게 머물 만한 장소 찾으러 간 사이 드디어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 다운이 시작 되었고 미니 주변을 둘러싼 연인들은 키스 할 준비를 하기 위해 점점 더 발코니쪽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주고 받으며 왁자지껄한 가운데 미니는 조용히 속삭이듯 자신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바로 그 때 한 여자가 미니의 코트 어깨 부분에 토를 하고 말했다. 그 코트는 빠듯한 살림에 자린고비가 된 미니가 겨우 겨우 산, 갖고 있는 옷 중 가장 고급스러운 옷이었다. 미니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징크스가 반복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얼마 후 그렉이 도착했고 그는 미니를 달랜 후, 클럽의 또 다른 계단을 통해 이어지는 빨간 벨벳으로 덮인 이중문으로 미니를 안내했다. 경비원들까지 있는 그 문을 지나자 아까 있었던 장소와는 전혀 다르게 적당한 볼륨의 음악이 흐르고 세련되고 점잖은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세계가 나타났다. 미니는 화려한 그 장소를 둘러보면서 이 곳이 부자들의 파티 장소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고 덜컥 겁이 났다. 미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여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순간 자신의 옷차림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때 때마침 역시나 세련되보이는 그렉의 친구 루시가 도착했고 미니의 옷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VIP 룸까지 오는데 고생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루시는 유명 푸드 칼럼니스트로, 오늘 파티의 주인공은 사실 생일을 맞은 자신의 남자 친구라고 설명했고 자신의 남자친구처럼 새해에 태어난 미니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미니는 이런 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면 과연 얼마나 돈이 들지 궁금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친구 앞에서 은근히 미니가 푸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애써 미니를 거창하게 포장하려는 그렉의 모습에 기분이 상했다. 루시는 이런 식의 파티는 루시가 결코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코트에 묻은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역시 징크스대로 화장실 입구 문 손잡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화장실에 갇혀 버리고 말았고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 속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아무리 구조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자,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남아 있지 않았던 미니는 바닥에 주저 앉아 깜빡 잠에 들었다. 그리도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두 집에 가버린 것인지 미니는 바깥이 조용한듯하자 다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얼마 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문이 열렸다. 미니는 따뜻하고 자상한 얼굴을 한 그 남자를 보자 왜 여태껏 그렉이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버린 것인지 갑자기 서러워졌다.

얼떨결에 파티장에 남은 마지막 두 사람이 된 그들은 함께 일출을 맞이했고 미니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바로 루시의 남자친구로 미니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퀸 해밀턴’이었고 미니는 그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가 썩 달갑지 않게 느껴졌다. 게다가 미니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랬던 것처럼 미니와는 너무나 다르게 잘생긴데다 잘나가는 사업가였고 완벽한 여자 친구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심술이 났다. 그러나 퀸은 두 사람이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 신기해했다. 미니 역시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퀸이 왜 자꾸 자신의 앞에 나타나는지, 왜 이토록 두 사람이 잘 통하는지 점점 의아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일까?

<저자 소개>

소피 쿠젠스 (Sophie Cousens)는 12 년 동안 런던에서 TV 프로듀서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가족과 저지섬에서 살고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

제목 : THE HOUSE GUEST

가제 : 하우스 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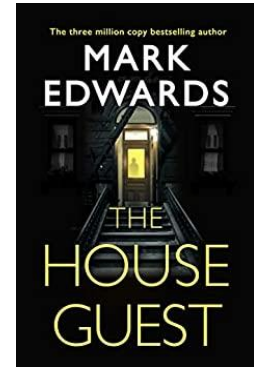
저자 : Mark Edwards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20년 6월 3일

분량 : 29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이 책을 읽느라 손톱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최고의 스릴러 작품”- 『The Wreckage』의 저자, 로빈 모건-벤틀리

★ 월 스트리트 저널 베스트 셀러이자 아마존 베스트 셀러 『HERE TO STAY』의 저자의 신작

영국 태생의 이십 대 청춘 커플인 루스와 아담은 뉴욕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곧 의문의 손님이 그 집을 찾아오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긴장감과 반전이 가득한 스릴러이다.

덥고 습한 어느 여름, 아담과 루스는 두 사람은 모나와 잭의 집인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다. 루스는 브로드웨이 연극계의 주역으로 급부상 중인 떠오르는 샛별이었고 아담은 커다란 야망을 가진 작가이긴 했지만 여전히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 그들은 루스가 참여한 템페스트 공연이 열린 한 크루즈 선에서 모나와 잭 부부를 만났는데 루스는 크루즈 공연 중 뉴욕에서 열릴 공연에 캐스팅 되었고, 때마침 잭과 모나 부부가 뉴욕을 떠나 뉴 멕시코에 휴가를 가 있는 동안 자신들의 집을 관리하며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 곳에서 한 동안 지내게 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고 누군가가 아파트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아담이 문을 열자 방금 허드슨 강에서 빠져 나온 것처럼 머리부터 발 끝까지 흠뻑 젖은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우편함 번호를 확인 하더니 이 집이 모나와 잭의 집이 맞는지 물었다. 아담은 그녀에게 모나와 잭이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동안 자신이 이 집에 머물면서 집을 돌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담에게 혹시 잠깐 들어와 모나와 잭에게 남길 메모를 써도 될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담은 이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상 여행 규칙상, 핸드폰 연락 조차 할 수 없는 주인 허락 없이 외부인을 집으로 들이는 게 영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잭과 모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다 배낭까지 매고 비참한 꼴을 한 그 여자를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바람에 그녀를 집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다. 아담은 그녀에게 수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 서둘러 욕실에 갔다가 루스를 마주쳤고 루스에게 대충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아담은 그녀가 몸에 묻은 물기를 닦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들보다 겨우 몇 살 정도 어린 스물 다섯 정도의 예쁜데다 유머까지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담과 루스에게 자신의 이름은 ‘에덴’이며, 잭과 모나가 뉴욕에 오게 되면 이

집에서 머물러도 좋다고 말한 덕분에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정으로 부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아담과 루스는 에덴을 다시 비가 오는 바깥으로 보내는 대신 비가 그칠 때까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루스 역시 에덴에게 호감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가 아담의 이상형에 가까운 귀여운 여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또한 한편으로는 뉴욕에 온지 몇 일 동안 일에만 몰두하느라 지쳐있던 차에 새로운 손님을 만난 것이 반갑기도 했다.

에덴은 LA에서 같이 살았던 남자 친구 덕분에 그의 동기인 잭과 모나를 알게 된 것이었는데 그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LA를 떠나 뉴욕으로 온 것이었다. 아담은 에덴과 이야기 하며 그녀가 자신은 물론 루스와도 비슷한 예술적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인 특유의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덧 빗소리가 멈추고 왠지 모르게 슬픈 표정을 한 에덴이 집을 나서려 하자 아담은 방금 연인과 헤어진 후 수중에 돈도 없이 잭과 모나를 제외하면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뉴욕까지 온 그녀를 막상 보내려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담은 루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에덴에게 이 집에 더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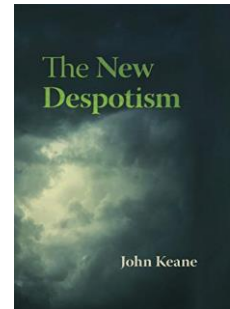
얼마 후, 아담은 창가에 다가갔다가 이상한 남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턱 밑 회색 수염이 보였다. 그는 분명 잭과 모나의 집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 했고 점차 집으로 다가오는 듯 하더니 아담을 발견하곤 곧 우산 속으로 얼굴을 깊이 숨기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아담은 왠지 모를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 사실을 무심코 넘겨버렸다. 다음 날 아침, 아담은 이번에도 제출한 연극 대본 원고를 퇴짜맞았다. 아담은 루스와는 달리 몇 년 째, 계속 거절만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브로드웨이가 있는 뉴욕에서조차 이런 비참한 꼴이라는 사실에 우울해진 마음을 달래려 공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찢찢하게도 자꾸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담은 일에 바쁜 루스 대신 에덴과 함께 수영을 하거나 술집에 다니며 급속도로 친해졌다. 그리고 잭과 모나가 돌아오기로 한 날밤 거나하게 취해 데킬라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담은 에덴은 물론이고 루스마저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이에 더해 집에 도착한 잭과 모나가 에덴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잭과 모나는 아담이 에덴 이야기를 꾸며냈고 루스의 실종 또한 아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루스는 어디로 간 것일까? 에덴이 그녀를 납치라도 한 것일까? 수영을 기른 그 남자는 과연 누구를 엿보고 있었던 것일까?

<저자 소개>

마크 에드워즈 (Mark Edwards)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무서운 일을 소재로 한 심리 스릴러를 주로 쓰고 있다. 2013 년 첫 번째 소설 『The Magpies』이 출간 된 이후 그는 총 3 백만 권의 책을 판매한 작가가 되었고 그의 여러 작품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했다. 그의 다른 소설로는 『Follow You Home』, 『Retreat』, 『In Her Shadow』, 『Here to Stay』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작가 루이스 보스와 6 권의 책을 공동 저술했다.

NON-FICTION

제목 : THE NEW DESPOTISM
가제 : 독재: 새로운 위협
저자 : John Keane
출판사: Harva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20년 5월 12일
분량 : 296 페이지
장르 : 정치



***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독재 정부들의 반 민주적 관행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서**

***"민주주의에 있어 어두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고 있다." - 『Biography of Power and Redeemers』의 저자, 엔리케 크라우제**

'언젠가 세계는 전부 우리와 같아 질 것이다.' 이는 한때 서구 세계가 가난과 제국주의 통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을 무렵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한 이기적인 자기 만족적 가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어떤가? 오늘 날 가장 뛰어난 정치 사상가들 중 하나인 존 키엔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주의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는 점점 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독재주의적 정부 형태의 모습으로 온 세상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탐험과 인터뷰, 민주주의에 관해 평생 고민해왔던 저자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 책에서 저자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중앙 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유럽을 돌며 그동안 세계 정부들이 권력을 분담하는 질서와 오랜 시간에 걸쳐 성립된 정치적 이상을 위협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숙련시켜왔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민주주의적 수사를 동원해 지지자들의 자금 후원과 검은 돈, 꾸준한 경제 성장, 교묘한 미디어 통제, 교살된 사법부, 저인망 감시 및 상대에 대한 선택적 폭력을 바탕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힘을 모으며 성장했고 심지어 이제는 실질적인 형태의 정부의 모습으로 등장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저자는 독재, 독재 정치, 파시즘, 권위주의와 같은 이런 흔한 용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체제들이 아직도 건재하게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제는 구어가 된 '폭정 (despotism)'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부들이 지역적, 세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어떻게 서로의 자원을 주고 받으며 획득한 힘으로 세계 곳곳에 불안을 전파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위협하고 있는 지 설명한다.

18 세기의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와 마찬가지로 저자는 이 모든 동향 속에서도 안온한 삶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힘을 모으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몽테스키외가 그랬듯이 이러한 독재주의 관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목차>

1 부: 다시 암흑 시대

- 1 장. 황량한 줄
- 2 장. 예레미아
- 3 장. 전갈의 유령
- 4 장. 오해

2 부: 부, 돈, 힘

- 5 장. 후원
- 6 장. 금권주의자들
- 7 장. 국가 자본주의바
- 8 장. 속국
- 9 장. 중산층 사람들

(이하 생략 총 7 부 30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존 킨 (John Keane)은 시드니 대학교 베를린 Wissenschaftszentrum (WZB) 의 정치학 교수이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이다. 저서로는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When Trees Fall, Monkeys Scatter』, 『Power and Humility: The Future of Monitory Democracy』가 있다.

제목 : DNA NATION

가제 : 스마트 시대의 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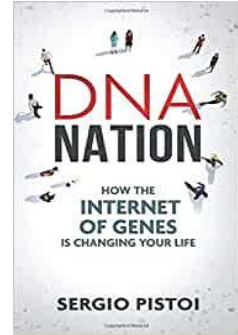
저자 : Sergio Pisto

출판사: Crux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10월 18일

분량 : 262 페이지

장르 : 과학



*** 정말 우리의 DNA 속에는 모든 답이 숨어 있는 것일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는 DNA 분석 테스트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담긴 책**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이 책은 술술 익힐 뿐만 아니라 유전자 테스트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안내한다. 자신의 조상, 건강 및 다양한 인류의 모습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봐야 하는 책.”- 『Human Genetics and The Forever Fix』의 저자, 리키 루이스**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벌써 이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단 몇 번만의 클릭과 침만 조금만 뱉으면 비싼 저녁 식사 한끼 정도의 비용으로 온라인에서 아주 편안하고 쉽게 우리의 DNA 를 해독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내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 살고 있는 먼 친척들을 추적하면서 유전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친구까지 사귄다. 이러한 소소한 재미거리 뿐만 아니라 DNA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는 잠재적 질병에 대한 소인들을 미리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식사 계획을 설계 할 수 있고 자신 혹은 내 자녀에게 더 적합한 스포츠 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더 나은 데이트 상대도 찾을 수 있다. 생물학의 진보와 인터넷 빅데이터가 만나 일명 '소비자 유전체학'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작동 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 테스트를 이용해 얻는 DNA 해독 자료에 따라 우리는 미래에 찾아올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데이터의 내용에 오류가 생기거나 혹은 이러한 테스트가 오남용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저자 세르지오 피스토이는 이러한 의문을 시작으로 직접 자신의 DNA 테스트를 실행해보기로 했다. 그는 시험관을 침으로 채우고 소비자에게 직접 유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23andme.com'로 그 샘플을 보냈다. 그는 99 달러의 가격으로 그는 자신의 유전자 프로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실 분자 생물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자는 수년간 다른 사람들의 유전 물질을 연구 한 DNA 과학자였지만 막상 자신의 유전자 분석 결과물을 보려니 어쩐지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술

사회였다. 저자는 개인이 이러한 업체들 덕분에 자신의 유전적 질병 및 여러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부도덕한 사업체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아이디어들을 이용해 검은 돈을 형성하고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앗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그는 최근 유행 중인 이 유전자 검사가 우리 시대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전학은 결코 우리 운명을 알려주는 절대적 예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DNA는 환경에 따라 수천 가지 경우의 수가 발현 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서로 주고 받는 단백질들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학에서부터 음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전학 및 광고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DNA 혁명이 일상 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그 이유와 이 현상이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알려준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최첨단 과학과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지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보여주는 책이다.

<목차>

1 부. 연결

- 1 장. 침뱉는 사람이 되는 방법
- 2 장. 안녕하세요, Cuz!
- 3 장. 아담과 이브, 재장전
- 4 장. 유전자 놀들
- 5 장. 아이덴티티 게임

2 부 DNA 파일을 사용하기

- 6 장. 구름 속의 유전자
- 7 장. 유전자 셀카
- 8 장.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
- 9 장. 괴짜와 아름다움

(이하 생략, 총 5 부 22 장 및 부록편으로 구성)

<저자 소개>

세르지오 피스토이 (Sergio Pisto)는 분자 생물 학자, 기자 및 작가이다. 그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파리의 마리 퀴리 대학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유전자 변형 유기체에서의 mRNA 의 안정성을 연구하면서 분자 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과학자와 소통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합한 과학 저널리스트로 Scientific American, Reuters, the New Scientist, The Lancet, Nature, RAI 등 많은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테드 강연에도 출연한 바 있다.

제목 : LOVE IT OR LEAVE IT

가제 : 월요일이 두려운 당신에게: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안내서

저자 : Samantha Clarke

출판사: Endeavour

발행일: 2020년 3월 19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월요병 없이, 워라밸 인생과 진정한 일의 동기를 갖게 되기를 꿈꾸는 이 세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 " 이 책은 정말 재치있고 영감이 넘치는 책이다. 나는 특히 '자기 통찰력 개발을 위한 실질적 사고 연습' 부분을 재밌게 보았다. 이 책은 당신이 사랑하는 삶과 직업을 모두 얻기 위해 도움을 줄 훌륭한 안내서이다. " - 수지 리딩

일과 우리의 관계는 씁쓸하게 꼬여버린 안타까운 사랑이야기와도 같다. 과거에 우리는 주로 육체 노동을 하며 근육을 쓰는 대가로 시간당 정해진 돈을 받았다. 당시 일이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으며 기쁨이란 조금도 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무 업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차가운 바깥을 벗어나 온기가 감도는 사무실로 들어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빠르고 단순하게 만들어줄 기술을 습득하고 점차 똑똑해지면서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은 결실들을 맺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호기심이 많은 존재들이었고 일과 나의 관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궁금한 마음에 시간과 두뇌를 사용한 대가로 돈을 받으며 더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투자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호작용을 멈추고 우리의 감정을 억누른채, 휴식시간까지 포기해 버렸다. 직장인들을 위한 행복 전문가인 저자 사만다 클라크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일하기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가 애써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여태껏 우리가 얼마나 멀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함정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복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직장 생활을 더욱 버겁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더 커진다.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변화는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며 우리의 두뇌는 절대 이 변화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뇌의 이러한 작용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하며 달라지는 세상에 탄력적으로 적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속한 위치,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무엇을 갖길 원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인공지능에 맞서기 보다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소프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바로 저자가 말하는 '미래의 직장인들을 위한 덕목'이다.

1. 느긋한 마음으로 도전과 함께 춤을 춰라.
2. 타인에게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라.
3. 짐승처럼 문제 해결에 달려들어라.
4. 신규 및 기존 연락처와의 협업하고 관계를 구축하라.
5. 성공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정신 건강 관리에 힘써라.
6. 직접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7.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이끌어라.

현재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 유연한 업무 루틴을 원하는 사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커리어 변경을 고민 중인 사람, 꿈의 직업을 얻었지만 동료와 갈등 중인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목차>

서문

1부. 일과 삶의 조화.

- 1 장 : 나는 누구?
- 2 장 : 경계선 재정립

2부. 고통이 있는 곳에 운동하기

- 3 장 : 내 일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
- 4 장 : 올바른 변화를 선택하라.

3부.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 5 장 : 내가 가진 도구들 평가해보기

(이하 생략, 총 6부 1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사만다 클라크 (Samantha Clarke)는 행복 컨설턴트이자 'Love It Leave It'의 설립자이다. 그녀는 행복 컨설턴트로서 사람들을 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School of Life'와 'Guardian Masterclasses'의 강사로서 경력 잠재력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포트폴리오 경력을 쌓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감과 리더십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목 : HERE BE DRAGONS

가제 : 괴물의 역사

저자 : Natalie Lawrence

발행일: 2021년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인문



*** 괴물들의 역사를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가장 깊은 공포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책**

우리들 상상 속에서는 여전히 괴물들의 이미지가 항상 자리잡고 있다. 책에서든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여전히 용과 같은 신비로운 생물들은 매력적인 존재로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를 매혹하고 두렵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상상의 동물일 뿐이다. 이 세계에서 괴물들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

이 책의 저자인 나탈리 로렌스는 괴물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직도 괴물들의 존재를 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와 모습을 갖춘 괴물들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먼 세계, 즉 우주에서 살고 있는 외계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의 깊은 곳에서 나온 괴물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킬 박사처럼 인간의 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도 결국 무의식의 미로에 갇혀 끔찍한 존재로 변하는 인물들을 상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괴물들은 용이나 다른 괴생명체들처럼 어떤 생물 종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단순한 상징 그 이상이며 인간 내면에 불가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인간상을 드러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난 15,000 년 동안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괴물들의 역사를 소개한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던 괴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신화 또한 섞여 있다. 엄밀한 지리적 관점보다는 괴물들의 흔적을 좇는 이 책은 독자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의 소용돌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들과 생명체들, 인간 내면의 어두운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와서 왜 굳이, 이 괴물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괴물들은 지금 이 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괴물들은 치료약이 없는 감염병 바이러스, 기후 변화, 세계전쟁,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 등 우리가 단순히 허구화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를 구체화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의 말대로, 이 책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그 괴물들을 직면하고 그들

을 잘 길들여서 이 혼돈의 용들이 우리의 세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괴물 이야기는 언제나 그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격변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오늘 날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자연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감안할 때 이러한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물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할지도 모른다. ‘괴물’이라는 주제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책이다.

<목차>

소개 : 용 만들기, 살인 목적을 가진 용

용의 탄생

선과 악의 괴물

<저자 소개>

나탈리 로렌스 (Natalie Lawrence)는 현재 런던에서 거주하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 연구원, 연설가이자 교사이다. 2017 년에 그녀는 영국 워릭에서 열린 TEDx 강연에서 '사회가 괴물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바 있다. 그녀는 Aeon Magazine, BBC Wildlife Magazine, The Conversation, Berfrois 및 Public Domain Review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괴물에 대한 글을 발표했다. 또한 그녀는 학술지 Worlds of Natural History (CUP, 2018)에 발표했던 'Making monsters'를 포함하여 수많은 저널과 학술지에 글을 발표했다. 저자의 웹 사이트 주소는 www.nataliejlawrence.com 이다.

제목 : THE PANIC YEARS

가제 : 여자의 고민: 데이트, 결혼, 출산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여성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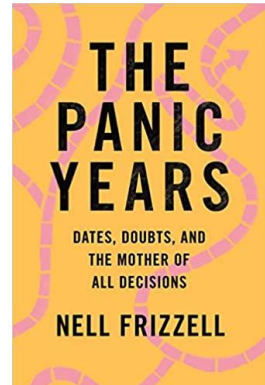
저자 : Nell Frizzell

출판사: Transworld Digital

발행일: 2020년 5월 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심리, 회고록



***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들이라면 반드시 책장에 갖고 있어야하는 책"- 판도라 사익스**

***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유익하기까지 한 책"- 돌리 애들턴**

모든 여성들의 생애 주기 표에는 '어린 시절', '사춘기', '폐경기'가 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기간을 이르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 넬 프리젤은 자신의 서른 세 번째 생일날 맞이한 그 아침,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서 눈을 떴다. 또한 그녀의 곁에는 태어난 지 겨우 2주 밖에 되지 않은 첫 아이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배는 젖은 진흙처럼 무거웠고 두 눈은 설새 없이 울어 댄 바람에 몹시 아려왔다. 당시 저자는 한달 동안 세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고 늘 남자 친구의 늘어진 운동복과 양말을 입은 채 지내고 있었다.

모든 여성들은 이십 대 후반, 삼십 대 혹은 사십 대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맞이해야만 하는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모가 되는 일은 여성의 생식 능력과 관련된 생물학적 마감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이다. 이 일은 우리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일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을 차지 하게 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집을 옮기고 새로운 친구 혹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한번 부모가 되면 그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성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요한 시기를 일컫는 용어는 30대 초반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연구하는 의학적 자료에도, 독일어에도, 라틴어에도, 프랑스어에도, 아랍어에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명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의 시기 동안 여성들은 돈, 사랑, 지위, 경력, 피임 등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은 뒤편 결정들의 늪 사이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자질구레한 고민거리에 더해 늘 유한한 생식 능력과 나이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저자는 이 이름 없는 시기를 바로 '공황의 나날들'이라고 부른다. 이는 여성의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25 세에서 40 세 사이에 발생하는

개인적인 위기와 변화, 공황들이 닥쳐오는, 즉 청소년기부터 폐경기 사이의 시기를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 정신 없고 분주한 시기에 과연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유쾌함과 솔직함으로 무장한 이 책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 없이, 어머니이든 어린이이든, 동료든 친구든 상관 없이 속 시원하게, 정말 솔직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들 혹은 이 여성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쾌한 영감을 선물할 책이다.

<저자 소개>

넬 프리즐 (Nell Frizzell) 은 언론인이자 작가이며 엄마이다. 그녀는 Guardian, VICE, The Telegraph, Elle, Grazia, The Pool, The Observer, BuzzFeed, Refinery29, Red and Time Out 과 같은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 하고 있으며 Vogue 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또한 저자는 BBC Radio4 's Woman 's Hour, Shortcuts, Radio 5 Live, BBC London 및 BBC Radio Scotland 및 BBC Radio Ulster 에도 출연 한 바 있고. 런던에서 열리는 다양한 코미디 페스티벌에도 참가하고 있다.

제목 : THE WIM HOF METHOD

가제 : Wim 호프 메소드: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의 건강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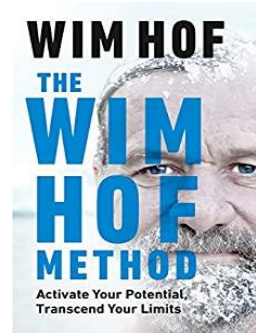
저자 : Wim Hof

출판사: Ebury Digital

발행일: 2020년 9월 24일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건강



★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Wim 호프의 건강 비결

★ 현재까지 전세계 12 개국에 판권 판매

현대인이란 누구나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꿈은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 체중은 줄이고 운동 능력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도전할 경우,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단 며칠 만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떨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더욱욱 편리 해졌다. 하지만 인류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내적인 능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잃어버렸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쌓아 올린 인류의 업적과 기술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없애는 바람에 인간은 더 약해져 버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핏속을 타고 인류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생리적 과정을 일깨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일명 ‘아이스맨(Iceman)’이라고 불리는 이 책의 저자인 Wim 호프는 1959 년생 네덜란드인으로 추위와 관련 20 여 개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07 년 그는 반바지만 입은 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2008 년에는 얼음 욕조에 1 시간 13 분이나 몸을 담그고 있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또한 2009 년에 그는 눈 덮인 칼리만자로 정상까지 역시 반바지만 입고 단 이틀 만에 올라가는데 성공했다. 같은 해 그는 북극권인 핀란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영하 20 도의 추위를 뚫고 완주했고 2011 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나미브 사막에서 열린 마라톤 완주에 역시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핀란드 오울로에서 열린 하프마라톤 대회에 맨발로 참가해 16 시간 34 분 동안 달렸다.

이토록 강인한 체력을 가진 그가 거의 40 년 동안 개발 해낸 건강 비결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원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단 3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호흡과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명상, 그리고 극한의 추위에 우리의 신체를 일부러 노출 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 3 가지 방법을 실제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불가능하다고 손사래 쳤던 위업들을 달성했고 기네스 세계 기록을 20 번이나 깨면서 전세계 의료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놀라운 기록들이 초인간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워 줄 3 가지 핵심 접근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건강서이다.

<목차>

엘리사 에펠 박사의 서문

머리말: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1 장. 선교사

2 장. 아이스맨의 탄생

3 장. 하루에 한 번 냉수 샤워

-의사를 멀리하라

-WHM 프로토콜 : 저온 노출

-웜 호프가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법

-웜 호프 방법 실험 # 1

-따뜻한 손과 발을 위한 얼음 물 목욕

4 장. 진짜 뭐 같이 숨쉬기

WHM 프로토콜 : 기본 호흡 연습

두통이 발생할 경우

높은 고도에서 걷는 동안 호흡 운동

(이하 생략, 총 13 장 및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웜 호프 (Wim Hof) 일명, '아이스맨'은 지구력과 추위를 견디는 데 성공하여 여러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만 건에 달하는 그의 방법의 효과는 8 개의 대학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으며 BBC, VICE Media 및 Discovery Channel 과 유명 팟캐스트 및 베스트셀러인 . Joe Rogan Experience, Tim Ferriss Show 및 『What Doesn't Kill Us (저자:Scott Carney)』에도 소개 되었다. 그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